

상임위원장 野에 넘겨주기 전에...민주, 입법 강행 '대공세'

언론중재법 일사천리 진행

기후위기법·사립학교법 강행 예고 야 "거대 여당 입법 폭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의 단독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최종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처리 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체위와 환노위, 교육위를 비롯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파른 전선이 형성됐다.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뿔'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되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

절차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19일 언론중재법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며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의 기후위기 대응법, 교육위의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안도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고된 상태다.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교사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 보장법 등 4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상태다.

기후위기대응법의 경우 자정을 넘기는 심야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여야 대치수위가 높아지면서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없애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저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아니냐"며 "이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 전 관문인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래 논의해온 법안들인데 야당은 뭉니 수준의 '자연 전술'만 썼다"며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답한 건 우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중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전재수군 묘비를 찾아 넋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방문 김종인 "녹취록 공방 대수롭지 않아...곧 진정"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난 것을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오찬 회동에 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전 국회의장과 점심 약속을 했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체가 대선 주자 상대로, 어느 대선 주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당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것도 있고 잡음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전반적인 상황을 재조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 잡음은 곧 해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날 5·18묘지 참배 이유에 대해서는 "1년 전 오 늘 여기에 와서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사죄를 하는 계기로 삼았다. 1년 된 날이라 다시 한번 찾아야겠다 생각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호남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했던 것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내부 갈등 '옥새파동' 방불

이준석-윤석열 갈등·계파싸움 등 "이러다 정권교체 실패" 자성목소리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 논쟁이나 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다"며 "분열은 곧 패망"이라고 우려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당이 내부총질과 싸움박질로 날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가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계파 싸움에 몰두하다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2016년 총선 때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등 친박계의 당대표 흔들기와 '진박 공천'에 반발, 당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도피한 '옥새파동'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오르고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니 다들 초심을 잃었다"며 "깜포로 뿔뿔이 흩어져 권력 투쟁을 벌이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개

탄했다. 당 지도부는 이런 쓴소리를 의식한 듯 서로 작정하고 물어뜯던 이틀 전 '아사리판'을 반복하지 않았다. 비공개 최고위는 불과 10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치명적인 당내 갈등의 불씨는 진화되지 못한 분위기다. 내용에 대한 책임 공방이 또 다른 내용으로 번지면서 자중지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가 뇌관으로 거듭 부각됐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 열망을 뒤로 하고 경선 주도권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 정치에 모두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경선 관리에 주자별 유희리를 따지며 '리더십 흔들기'를 시도하는 인사들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에서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강행하면 이번에 충돌한 사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 대표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서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중립성 논란을 부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다시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면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

김동연 오늘 고향 충북 음성서 대선 출마 공식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는 20일 고향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전 부총리 측은 19일 "내일 음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원로·사회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대선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김 전 부총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제3시대'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이

사장직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 자리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당 창당까지도 염두에 두고 각계 인사들을 다양하게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은 김 전 부총리의 고향인 동시에 사무관으로서 첫 부임지이기도 하다.

김 전 부총리 측은 "음성군청에서 처음 시작해 34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